

<촛불의 의미 - 촛불과 구조주의, 기표와 기의의 연관성, 계열체와 통합체>

영어영문학과 2011***** 김진성

2016년 하반기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국정농단 스캔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정이 전개되었고 급기야 12월 9일 국회에서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어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무더운 여름, 학생들과의 사전 소통 없이 미래대학 산업을 추진했던 이화여대에서 이것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던 중 승마선수 정유라 씨가 당 학교에 부정입학을 하고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며 이 거대한 사건이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 언론과 일부 공직자들을 통해 최순실(본명 최서원)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단순히 딸을 명문대에 부정입학 시켰을 뿐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의 비선실세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의 의상이나 병원 치료 같은 사생활은 물론 인사, 정책, 국책 사업 재단설립 등 국정에 관한 일은 물론 국민에게 발표하는 연설문까지 손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익을 해하면서 동시에 사익도 많이 추구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국가를 이리저리 주무르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자신의 잇속을 챙겼음에 분노했다. 또한 그러한 비선실세에 크게 의존하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능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크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거짓말만 일삼으며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그의 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집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10월 26일부터 진행된 집회는 토요일에는 대규모로, 평일에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곤 했다. 이 중 토요일에 이루어진 대규모 집회에서는 매주 서울에서만 10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도 평화로이 진행되어 세계적인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집회의 필수 품목이 되어버린 촛불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의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 촛불과 기호, 기표, 기의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며 연합체와 통합체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 및 적용해보려고 한다.

촛불의 구조주의적 해석 - 역사속의 촛불과 2016년의 촛불

구조주의는 소쉬르의 언어학 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언어학은 물론 사회 과학을 비롯한 많은 학문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조주의란 어떠한 개별적인 것이 혼자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가지기보다는 다른 주변의 것과의 유기적인 관계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 역시 주변의 조건, 이를테면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영향 받고 결정된다.¹⁾

그렇다면 대한민국 시국에서의 촛불은 구조주의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우선 촛불을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초’와 ‘불’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로 ‘초에 켜 불’이라는 뜻이다.²⁾ 촛불은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많이 쓰였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전기가 많이 쓰이므로 특별한 때에 쓰인다.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거나 전기가 없었던 시골 조부 댁에서 밤길을 거닐 때

1) 「우리시대 왜 인문학을 말하는가? - 5피트 책꽃이와 독서국민」 이현우, 출판문화 2010년 9월호 -해; 기호와 사유 수업자료.

2) 네이버 사전 : 촛불

혹은 생일 축하를 할 때와 같이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촛불을 켜던 기억이 있다. 이렇듯 촛불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밝히거나 특별한 일을 행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단순히 촛불을 그런 일차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 들고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있는 촛불에는 그 이상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런 숨겨진 본질적인 의미는 촛불 자체만을 분석하기보다는 주변의 것들도 함께 살펴봐야 알 수 있으며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촛불의 의미도 각각 다를 것이다. 사회적인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구조를 형성하며 촛불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소쉬르가 언어 사항의 가치는 다른 모든 사항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므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듯이 구조주의적으로 바라본다면 촛불집회에서의 촛불의 가치와 의미는 다른 모든 사항 - 예를 들어 사회적인 시류나 분위기 혹은 집회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촛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성향 등 - 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므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외형적으로 같아 보이는 여러 번의 촛불집회의 촛불의 의미도 시대와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촛불집회의 기원부터 알아보자. 촛불집회는 광장 등에서 야간에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를 말한다. 이는 1968년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시위의 하나로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반전 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촛불은 반전 혹은 평화를 의미했다.³⁾ 그렇다면 국내 촛불집회의 촛불에는 그동안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국내에서의 첫 촛불 집회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촛불은 ‘못다 핀 꽃 같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슬픔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미군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표현되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촛불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는 여러 번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 시민들이 평화적인 촛불집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가령 2004년 대통령 탄핵사태가 있었을 때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에게 희망을 주고 야당의 정치적 횡포를 비난하는’ 촛불을 들어올렸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어 올렸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이 있었다.⁴⁾ 구조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같아 보이는 촛불집회라도 그때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었다.

한편 촛불집회가 벌어질 때 마다 촛불이 주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집회자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예를 들어본다면 촛불을 ‘송고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에 반해 그것을 ‘불순세력의 선동이나 잘 모르는 대중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역시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 속한 집단, 살고 있는 지역,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촛불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처럼 촛불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은 우리가 속해있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2016년의 촛불집회에서의 촛불은 어떨까? 최근에 벌어진 촛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에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작금의 사태에 분노하며 촛불에 동의하고 응원을 보낸다. 하지만 현재의 사태에 분노하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 내에

3) 네이버 지식백과 : 촛불집회

4) 네이버 지식백과 : 촛불집회 내용 중 국내의 촛불집회 순서(연도) 부분만 참조함. 각 촛불의 의미는 필자가 자의적으로 해석.

서도 촛불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다. 이를테면 몇몇 사람들은 촛불이 주는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어 대통령이 국민과 촛불의 무서움을 알고 즉각 하야를 결정하게 하는 ‘메시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한편 법적인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초법적인 하야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촛불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기보다는 탄핵을 주도하는 국회를 각성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탄핵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촛불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크게 보았을 때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개개인으로서 살펴보면 각각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바랬던 국민들과 - 정치적 계산을 통해 이런 상황을 최대한 더 끌려고 했던 야당 정치인들의 견해차이). 더군다나 사회구조적으로 이들과 아예 반대편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집권층과 이를 지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촛불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촛불집회의 촛불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설가 이문열 씨는 최근 “3%의 촛불” 이라며 그 의미를 폄하하기도 했고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바람이 불면 꺼지는 것이 촛불” 이라는 발언도 하였다. 이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과 주변 환경이 다르므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촛불, 기표와 기의 그리고 기호

소쉬르는 언어 기호를 개념과 청각영상의 결합, 즉 기의와 기표의 결합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언어의 본체라고 여겼다. 만약에 우리 국민이 들었던 촛불을 하나의 기호로 생각한다면 촛불 역시 기표와 기의가 연합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촛불에는 어떠한 기표와 기의가 결합되어 있을까?

우선 기표의 측면에서 촛불을 살펴본다면 촛불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청각 영상을 가지는 언어 기호와 다르게 시각적인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촛불이라는 사물 자체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봄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쉬르가 주장했던 청각 영상의 특성 - 시간적 길이를 표상하며 단일차원에서 측정 가능하고 연쇄를 형성한다. - 은 촛불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반대로 시각적 기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촛불은 다차원에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고 복잡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개는 물론이고 우리의 시각적인 범위가 허락하는 내에서 무한개를 보여줄 수도 있다. 또한 굳이 차례로 하나씩 출현하지 않아도 된다. 음성처럼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모이고 모여서 축적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음성과 달리 한 개 한 개의 촛불이 모여서 이것의 의미가 점점 커질 수 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적 특성 덕분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2만 개에서 시작된 촛불이 100만 개도 될 수 있고 250만 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인 촛불은 한 개 혹은 소수였으면 보여줄 수 없었던 거대한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처럼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이 거대한 촛불은 그것이 음성적인 청각영상이 아니라 시각적인 기표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한편, 촛불과 기의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소쉬르에 따르면 기의는 의미에 해당한다. 이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청각영상 형태인 기표가 귀를 통하여 우리 머리까지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기의를 떠올리고 이것은 기표와 결합해 기호를 만든다. 학습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는 물리적인 형태의 양초에 작은 불이 붙어 있는 이미지가 촛불의 기의로 있었을 것이고 촛불

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촛불을 사진으로 보았을 때 일차적으로는 그러한 전형적인 형태의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최근 촛불집회를 경험한 우리에게 누군가 촛불을 보여주며 의미를 물어본다면 단순히 일차적인 이미지 형식의 기의 이외에 다른 숨겨진 이차적인 개념을 생각해 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흔히 생각하는 희망이나 평화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촛불을 기호로 간주한다면 이것은 시각영상과 기의가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촛불은 시각적인 기표로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읽었던 청각영상과는 다르다. 또한 현 시국에서 촛불은 단순히 일차적인 기의 이외에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인 언어 기호와는 다르게 촛불이라는 하나의 기표에 대해 기의가 반드시 1대1로 대응하지 않고 기의(의미 혹은 관념)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티븐 핑커가 주장한 사고는 무한한데 언어는 유한하다는 말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각자가 사고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표를 보고도 다른 기의를 생각해 내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집회에서의 촛불의 의미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 25세 대학생 : 촛불은 불(火)이고 이것은 결국 민중의 분노.
- 21세 대학생 : 어둠을 밝히는 불.
- 24세 대학생 : 희망. 한 걸음 더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줌.
- 25세 대학생 : 100만 개 중에 하나.
- 23세 대학생 : 시민들의 눈물.
- 20세 대학생 : 민주주의. 민심을 보여주기 때문.
- 25세 대학생 : 개돼지 같은 국민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 25세 대학생 : 국민이 보내는 최후의 통첩.

* 출처 : 필자가 직접 교내 및 교외의 몇몇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함.



촛불이라는 동일한 기호를 보고도 여러 대학생이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생각했다.

전자촛불의 등장과 계열체와 통합체

소쉬르는 담화 내에서 단어들은 연쇄에 의해 서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는 선조성이 있기 때문에 두 요소가 동시에 발음될 수 없는 대신 다른 요소들과 차례로 배열되며 이것이 통합체라고 말했다. 통합관계는 단어들과 문장들의 유기관계를 규정하며 그 수가 유한적이다. 한편 담화 밖에서 공통점을 갖는 단어들이 기억 속에서 서로 연합해 다양한 관계가 지배하는 단어군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등위배열, 즉 연합체이다. 연합관계는 문장에서 의미를 갖게 될 기억 연쇄로 그 수가 무한수이다.⁵⁾ 즉, 마음속에 떠오르는 비슷한 혹은 연관 있는 단어군들이 연합체라면 이것들을 적절히 배열하는 것이 통합체이다. 언어에서는 연합체의 논리가 통합체의 실현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나타난 새로운 촛불들의 등장을 토대로 촛불집회를 연합체

5)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 강의』 pp.250~258

와 통합체의 개념에 적용해 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얼마 전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의 사기를 꺾기위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게 마련이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은 즉각 국민들의 대단한 분노와 지탄을 불러왔고 그 덕분에 새로운 촛불들이 등장했다. 바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촛불이 그것이다. 전자기기의 보급과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양초와 심지로 구성된 아날로그 촛불뿐만 아니라 전자 형태의 촛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촛불들의 등장과 촛불집회가 이 언어의 연합체 및 통합계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우선 촛불집회를 발화(혹은 문장)이라고 가정해보고 연합체와 통합체의 요소를 살펴해보려고 한다. 문장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진다. 마찬가지로 촛불집회도 다양한 촛불들로 구성되어 진다. 언어에 있어서 연합관계는 비슷한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발화(문장) 속에서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촛불집회에서는 촛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양초들이 전부 연합관계가 될 수 있다. 가령, 위에서 언급한 아날로그 형태의 기존의 양초, LED 촛불이나, 스마트폰의 촛불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다양한 종류의 양초들, (혹은 가끔 언론에서 ‘촛불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언급된) 햇불이나 집회에서 쓰일 정도의 불빛을 낼 수 있는 무한한 것들이 연합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집회(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촛불(단어)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

통합체는 집회와 이들 다양한 종류의 촛불의 자연스러운 연결관계를 설명해 준다. 초기의 일반적인 촛불집회에서는 이전과 같이 단순한 기존의 아날로그 촛불이 쓰였다. 그 후 김진태 의원의 발언 이후에는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만약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크고 강력한 햇불이 그 역할을 대신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의 촛불이던 시민들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들었던 적절한 촛불과 상황을 배열해주는 통합관계의 요소가 있다.

이는 촛불의 성격이 집회의 양상을 결정하는 형태의 연합체와 통합체의 모습을 보인다.

새로운 전자촛불과 집단 의식

한편, 월터 옹은 언어 표현이 전자(電子)의 방식으로 변화됨으로써 쓰기에서 시작되고 인쇄에 의해서 강화된 말과 공간의 관련이 더욱 깊어졌으며 이차적인 구술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자문화로 의식이 이행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 이차적인 구술성이 강한 집단 의식을 낳았다고 생각 하였다. 사람들이 그 속에 참가한다는 신비성을 가지며 실제로 매우 쉽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

촛불집회에서도 전자촛불의 등장은 촛불의 새로운 양상을 몰고 올 것이다. 전자 촛불은 우선 기존의 촛불보다 휴대하기가 편하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돈을 지불하고 양초를 사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촛불은 양초의 특성상 한번 불을 붙이면 그다음은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손으로 계속 들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촛불은 타고나면 없어지는 일회용이라 매번 집회 참여 시 새로 마련을 해야 하지만 전자촛불은 그렇지 않다. 한 번 준비 해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장점들은 사람들의 집회 참여를 매우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또한 과거 광우병 촛불집회 당

6) 월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임명진 옮김, 문예출판사, 2009, pp.215~216

시 집회에 사용되었던 양초와 종이컵을 불순세력이 무료로 나누어 주어 시위를 부추겼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전자촛불은 그런 소문의 염려도 없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그런 소문에 더 당당히 맞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집단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결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겪는 수많은 일들은 대부분 주변의 것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구조적으로 일어난다. 독립되어 보이는 사건들도 그 이면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른 사항들과 연대되어 일어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을 깊숙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의 본질과 가치를 완벽히 알기는 힘들다.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 주변의 것들, 그리고 그것들과 맺는 관계 등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호는 예나 지금이나 혹은 미래에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하며 살아가고 기호는 의사소통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호를 받아들이는 개개인은 자기 나름대로 기호를 해석하고 이해한다.

2016년 하반기, 추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도 그러한 맥락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의미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소쉬르의 기호와 연합체와 통합체의 개념을 촛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언어학의 기본서 라고 할 수 있는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소개되는 개념들은 알면 알수록 난해하고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감탄도 나오게 된다. 이번 기호와 사유 수업을 통해 훌륭한 고전을 읽게 되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야를 한 층 더 넓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참고자료>

2016년 아주대학교 가을 학기, 해: 기호와 사유 수업 참고자료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김현권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스티븐 핑커, 『언어본능』, 김한영 옮김, 동녘 사이언스, 2008

월터. J.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옮김, 문예출판사, 2009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 ‘촛불’, ‘촛불집회’